

체제전환기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치적 위상 변화에 대한 소고: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장 세 호*

목 차

- | | |
|--------------------------------|--|
| I. 서론 | IV. 통치세력의 민족·애국주의적 전환과
러시아연방공산당의 미래 |
| II. 탈소비에트 선거과정에서의 러시아
연방공산당 | V. 결론 |
| III. 민족주의 담론과 러시아연방공산당 | |

〔 논문 요약 〕

소련 붕괴 후 신생 러시아 사회 내에 만연한 전체주의적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병적인 거부 환경 속에서도, 소련의 전형적 당-국가 체제에서 중핵적 위치를 차지했던 '소련공산당(КПСС)'의 후신인 '러시아연방공산당(КПРФ)'은 여전히 자신의 질긴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무엇이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조직적 생존과 대중적 지지의 유지를 가능케 했는가?", 그리고 "현재 이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신생 러시아 내에서의 선거과정 분석을 통해, 90년대 중반 공산당의 화려한 재기는 무엇보다 '공산애국주의(коммунопатриотизм)'로 대변되는 러시아 좌익진영의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우향(右向) 기동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공산당의 급속한 지지율 저하는, 민족주의 담론의 활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집권세력이 푸틴의 등장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통치담론으로 민족·애국주의를 편입시킴으로써 발생한 민족주의 담론 경쟁의 패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탈소비에트 러시아 정치공간 내에서 유일한

*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본 연구는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NRF-2009-362-B00005). 본 논문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시사정보지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1, No.4에 연구노트 형식으로 게재된 것을, 2010년 12월 3일 개최된 한국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추후 수정·보완한 것임.

〈동북아연구〉

실질 야당으로 존재하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자신의 생존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 당분간 민족주의적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본연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갈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러시아연방공산당, 민족주의, 공산애국주의, 국가두마, 통합러시아

I. 서론

1848년,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유령이 전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극적 문구로 시작되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외침으로 마무리되는 공산주의자들 최초의 혁명적 문헌인 『공산당선언』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레닌은 누구도 그 승리를 쉽게 예상치 못했던 유럽의 변방 조국 러시아에서, 일찍이 그 스스로 “투쟁하는 문명세계의 전(全) 민중에게 영감을 주고 심금을 흔든다.”라며 극찬했던 이 선언을 살아 있는 역사의 현실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1991년, 자본주의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유토피아’ 건설을 주장하던 ‘소비에트 연방’은 역설적이며, 또한 실로 극적인 방식으로 역사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하였다. 더불어 인류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던 ‘냉전’이 종식되고,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으로 대변되는 떠들썩한 승전의 광파르 소리와 함께 자유주의의 최종적 승리가 선언되었다.

그렇다면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함께 소련의 전형적 당-국가 체제에서 중핵적 위치를 차지했던 공산당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동반 퇴장한 것일까?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구(舊)소련의 법적 계승자인 신생 러시아연방에서 소련공산당의 후신인 ‘러시아연방 공산당(КПРФ)’은 여전히 자신의 질긴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다. 탈소비에트 러시아가 체험하고 있는 역사상 유례가 드문 총체적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매개로 한 첨예한 보·혁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국가두마 내 제1당 지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가장 선명한 제1야당이자 대표적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공산당의 러시아 정치사회 내의 이 같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의 탈냉전기 러시아연방공산당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나마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권력구조, 정당체제, 제도개혁, 선거제도 및 선거분석 등을 다룬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이 다루어져 왔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 정당을 주요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선구적 연구인 문수연²⁾, 장인구³⁾ 등도 강령분석과 러시아 좌익세

2) 문수연,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정강 및 정책방향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1997.

력 동향 연구를 통해 적지 않은 학문적 기여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총체적 체제전환기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전망에 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실로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무엇이 소련 붕괴 후 신생 러시아 사회 내에 만연한 소련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병적인 거부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조직적 생존과 대중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게 했는가? 현재 이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 해결을 위해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의 러시아연방공산당이 거둔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공산애국주의 노선의 본질과 내용을 분석하고, 선거과정에서의 어떻게 이러한 노선이 발현되었는가를 추적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푸틴 등장 이후 조성된 새로운 조건에서의 공산당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논의될 것이다.

II. 탈소비에트 선거과정에서의 러시아연방공산당

1. 1993년 선거: 창립과 제도권 안착

1990년 소련공산당 제28차 대회와 러시아 인민대표자회의에서 당내 보수파 주도로 조직된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공산당(КП РСФСР)'은 1991년 9월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귀결되면서 엘친의 포고에 의해 소련공산당과 함께 그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후 1992년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결정에 따라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공산당의 지역조직들이 합법적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드디어 1993년 2월 13-14일 제2차 러시아 공산주의자 대회를 통해 소련공산당과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공산당의 조직적·이념적 계승자를 표방하며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창립되었다.⁴⁾

뒤이은 9월 21일-10월 4일 엘친 대통령과 최고의회 사이의 극단적 갈등 및 유혈 사태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안필로프(В. Анпилов)를 비롯한 다른 급진적 좌파세력들이 선거참여 자체가 엘친의 최고회의 해산 및 의사당 포격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며 선거 보이콧에 나섰던 것과 달리, '농업당(АПП)'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였다.⁵⁾ 1993년 12월 12일 치러진 선거에서 러시아

3) 강인구, "러시아 공산당과 좌익블록의 진로," 『역사비평』 여름 (통권 47호), 1999.

4) А.Шляпужников, А. Елкин, Есть такие партии! Путеводитель избирателя. М.: РОО Центр «Панорама». 2008. стр. 67-68.

5) 이창주, 『러시아현대정치사』 서울: 한울, 1998. pp. 152-153.

연방공산당은 약 12.4%의 득표율로 비례대표의원 32명, 지역구의원 16명을 원내에 진출시켰다.⁶⁾ 비록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지만 13개 선거블록이 난립한 하원의회 선거에서 공산당은 친(親)엘친 선거블록 ‘러시아의 선택(Выбор России)’, 급진 민족주의정당 ‘러시아 자민당(ЛДПР)’에 이은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탈소비에트 정치체제에 연착륙하였다.

2. 1995-1996년 선거: 화려한 재기, 그리고 수권(受權)의 꿈

1993년 선거 이후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당의 조직적 토대의 견고한 재구성 및 외연 확대에 전념하였다. 특히 1993-1995년 사이의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1995년 두마 선거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⁷⁾

1995년 12월 17일 치러진 국가두마 선거에서 공산당은 22.3%의 정당지지율로 비례대표의원 99명, 지역구의원 58명, 총 157명의 의원을 원내에 진출시킴으로써 하원의석 총 450석 중 34.9%를 획득하고 일약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였다. 선거에 참여한 선거블록의 수가 1993년 14개에서 1995년 43개로 급증한 가운데, 공산당의 뒤를 이어 ‘우리 집 러시아(Наш дом - Россия, 12.2%)’, 러시아자민당(11.3%), ‘야블로코(Яблоко, 10%)’만이 5% 진입 장벽을 뚫고 의회에 입성하였다.

1996년 대통령선거 6개월 전에 시행된 1995년 두마 선거는 집권 엘친 세력의 초기개혁에 대한 평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특히 다가올 대선에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다. 선거 전에 시행된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공산당의 승리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선거결과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이 탈소비에트 러시아 정치공간 내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정당이 되었음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였다.

러시아 하원 선거 승리 이후, 공산당 내부에서 때 이른 대선 승리 후 ‘쥬가노프(Г. Зюганов)’ 정부 각료 조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을 만큼 러시아 내는 물론, 국외에서조차 공산당의 승리가 조심스레 점쳐졌다.⁸⁾ 그러나 대선 후보로 쥬가노프를 내세운 러시아연방공산당은 1996년 6월 16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제1차 투표에서 32.5%, 제2차 결선투표에서 40.7%를 획득하는데 그침으로써, 1차 투표에서 35.8%, 2차 투표에서 54.4%의 지지를 거둔 엘친에게 선거 승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 공산당은 자신에게 찾아온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집권 기회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에서 “공산당은 유권자 절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력교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의 확산을

6)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선거 결과를 비롯한 일련의 통계자료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ЦИК Р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이후 그 구체적 출처를 밝히는 것을 생략한다. 그 구체적 출처는 참고문헌에서 보다 자세히 명시할 것이다.

7) M. McFaul, *Russia's 1996 Presidential Election: The End of Polarized Politic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7. pp. 36-37.

8) Ibid., p. 37.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3. 1999-2000년 선거: 포위당한 요새, 그리고 불길한 전조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두마 제1당으로서 공산당의 러시아 정치사회 내에서의 위상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국가두마 의장직(Г. Селезнев)을 비롯하여 의회 내 주요 위원회(입법위, 안보위, 경제정책위, 연방·지역정책위, 교육·과학위, 여성위, 관광·체육위 등)를 장악한 공산당은 집권세력에 대한 ‘책임 있는 반대진영(responsible opposition)’의 이미지를 실제적 수준에서, 그리고 대중적 수준에서 유지해 갈 수 있었다.⁹⁾ 그러나 1996년 대선 이후 러시아에서 공산당을 정점으로 하는 좌파세력의 집권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져 갔다.

대외적으로 2/3 개헌선 확보를 자신의 목표로 표방하며 참여한 1999년 12월 19일 국가두마 선거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24.3%의 정당지지율로 비례대표의원 67명, 지역구의원 46명, 총 113명의 의원을 원내에 진출시킴으로써 하원의석 총 450석 중 25.1%를 획득하고 원내 제1당 지위를 수성하였다.¹⁰⁾ 공산당의 뒤를 이어 푸틴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통합(Единство, 16.2%)’, 그리고 ‘조국-전 러시아(Отечество - Вся Россия, 15.1%)’, ‘우파세력연합(СПС, 6.4%)’, 야블로코(4.4%), 러시아자민당(3.8%)이 5% 진입장벽을 뚫고 원내에 진출하였다.

2/3 개헌선 확보라는 대외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1999년 하원의회 선거에 나선 공산당의 내부적 목표는 1995년에 획득한 득표율에서 10% 이상의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¹¹⁾ 따라서 24.3% 정당지지율 획득은 1995년 22.3%와 비교하여 2% 증가한 것으로 공산당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5% 진입장벽을 통과한 정당이 1995년 4개 정당에서 1999년 6개 정당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 배분에서 적잖은 손실(32석)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도 12석을 상실함으로써 총 의석수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일 선거연합을 구성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공산주의자, 노동하는 러시아 - 소연방을 위해(КТР СС)’, ‘러시아공산주의청년동맹(Российски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союз молодежи)’, ‘소연방을 위한 스탈린 블록(Сталинский блок - за СССР)’, ‘평화와 통합당(Паритя Мира и Единства)’ 등의 좌익 선거블록들이 참패를 면치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¹²⁾ 또한, 1999년 선거결과는 반

9) Шляпужников, Елкин, Указ. соч., стр. 71.

10) Там же, стр. 74.

11) С. Черняховский, “Россия в избирательном цикле 1999-2000 годов.” Под ред. М. Макфол, Н. Петров и А. Рябов. М.: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00.
<http://carnegie.ru/ru/print/36483-print.htm> (검색일: 2010.09.05).

12) Там же.

(反) 집권세력이 다수를 점하던 과거와 비교하여 친정부성향의 정당들의 의석수가 공산당을 압도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의회 권력구조의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

1999년 6월 제6차 러시아연방공산당 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유가노프는, 엘친의 드라마틱한 조기사임으로 3개월 앞당겨 치러진 2000년 3월 26일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는 29.2%의 초라한 지지율로, 52.9%를 획득하여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철저한 정치적 무명에서 1999년 모스크바 테러사건과 연이은 체첸반군의 다게스탄 침공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젊고 강한 지도자의 상을 대중 속에 각인시키며 러시아 정치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푸틴과 비교하여 유가노프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1999-2000년의 선거 결과는 공산당에게 결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푸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연방공산당이 곧이어 직면하게 될 비관적 운명을 예견하는 이 역시 많지 않았다.

4. 2003-2004년 및 2007-2008년 선거: 참담한 패배

러시아연방공산당은 2003년 선거를 통해 1999년 선거와 비교하여 절반에 그치는 정당지지를 거두었으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지역구 선거에서도 커다란 상실을 맛보아야 했다. 2003년 12월 7일 치러진 국가두마 선거에서 공산당은 12.6%의 지지율로, 40석의 비례대표 의석과 11석의 지역구 의석, 총 51석을 획득하는데 그침으로써, '통합'과 '조국-전 러시아'가 결합하여 2001년 12월 결성한 권력당 '통합러시아(Единая Россия)'에게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지켜오던 제1당 지위를 넘겨주고 원내 제2당 지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통합러시아는 이해 두마 선거에서 37.6%의 정당지지율을 획득함으로써 120명의 비례대표의원, 102명의 지역구 의원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파란을 일으켰다. 더불어 '인민당(Народная партия)'을 비롯한 소수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2004년 1월 총 306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개헌선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며, 의회 내 모든 위원회를 장악하였다.¹³⁾ 이듬해인 2004년 3월 대선에서 공산당의 새로운 후보로 지명된 '하리토노프(Н. Харитонов)'가 13.7%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며 2위에 머무르고, 푸틴이 71.3%

13) 김경순, "러시아의 선거와 정치과정." 유세희 편, 『현대 러시아 정치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5, p. 180. 통합러시아의 보다 자세한 창당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시 대통령행정실 수르코프(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부실장 등에 의해 크레믈린의 직접적 조직활동의 결과 창당된 친 푸틴 성향의 '통합'은 2001년 '조국(Отечество)'과의 합당을 비롯해, '러시아의 지역들(Регионы России)' 및 '인민 대표자(Народный депутат)'와 함께 "'통합' 그리고 '조국' ("Единство" и "Отечество")'을 창당하였다. 뒤 이어 '전 러시아(Вся Россия)'가 이에 결합하고, 같은 해 '통합 그리고 조국(Единство и Отечество)'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쇼이구(Сергей Шойгу), 루시코프(Юрий Лужков), 샤이미예프(Минтимер Шаймиев) 3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2003년 12월 당명을 통합 러시아(Единая Россия)로 변경함으로써 체제전환기 러시아 정치무대에서 유래 없이 강력한 권력당이 등장하였다. 장세호, "수르코프, 21세기 러시아의 마키아벨리?" 『Russia & Russian Federation』, 2권 2호, 2011, p. 23.

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 같은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 상실은 다음 선거에도 이어졌다. 2007년 12월 2일 완전비례대표제 도입과 진입 장벽 강화(7%)의 조건 하에서 시행된 국가두마 선거에서 통합러시아가 64.3%의 지지율로 315석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고, 반면에 공산당은 12.6%의 득표율로 57석을 획득하였다. 연이어 2008년 대선에서도 통합러시아의 ‘메드베데프(Д. Медведев)’ 후보가 70.3%를 획득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공산당의 주가노프는 17.7%의 지지로 2위를 차지하였다.

〈표 1〉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가두마 선거에서의 러시아연방공산당 득표율 및 의석수 변화

	1993년	1995년	1999년	2003년	2007년
정당지지율	12.4%	22.3%	24.3%	12.6%	12.6%
의석수(비례대표/지역구/총)	32석	99석	67석	40석	57석
	16석	58석	46석	11석	
	48석	157석	113석	51석	
두마 내 의석수 비율	10.7%	34.9%	25.7%	11.6%	12.6%

출처: 러시아 중앙선관위 자료를 재구성 <http://www.cikrf.ru/>.

〈표 2〉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산당 후보 득표율 변화

공산당 후보 및 주요 경쟁자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주가노프	엘친	주가노프	푸틴	하리토노프	푸틴	주가노프	메드베데프
득표율(1차/2차)	32.5%	35.8%	29.2%	52.9%	13.1%	71.3%	17.7%	70.3%
	40.7%	54.4%						

출처: 러시아 중앙선관위 자료를 재구성 <http://www.cikrf.ru/>.

Ⅲ. 민족주의 담론과 러시아연방공산당

탈소비에트 러시아 공간에서 지난 20여 년간 치러졌던 일련의 선거과정을 통해 나타난 러시아연방공산당에 대한 지지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일차적으로 이 당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한 지지의 표현일 것이다. 실제로 이 당의 주요지지층으로 연금수령자, 퇴역군인, 노년층, 저소득층, 저학력층, 노동자, 농민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다.¹⁴⁾ 그뿐만 아니라, 공산

14) 2004년 11월,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이 실시한 “러시아 인구

당은 급진적 체제전환 과정에서 엘친의 비효율적 개혁정책과 무정부적 혼란에 대한 반작용의 직접 수혜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기 요인만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가 두마 제1당의 지위를 차지했던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위상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탈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이 토대를 두고 있는 이념적 기초는 전통적인 소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만일 공산당에 대한 지지의 원천이 소련체제와 공산주의 이념 그 자체에 있었다면, 1995년 공산당의 부상과 2003년의 급격한 쇠락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공산당의 이념적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80년대 말부터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하는 1990년대 초까지 소련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全) 영역을 관통해오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점차 자신의 지위를 상실해갔다. 소연방의 붕괴로 초래된 급격한 변혁과 체제전환 시기에 소련 공산당을 계승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새로운 이념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공산당에게는 동유럽 사례와 같이 사민주의 노선의 채택과 민족주의·애국주의 노선¹⁵⁾의 강화라는 두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공산당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러시아 공간 내에서의 공산당의 민족주의 노선 강화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요구된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대한 그들 나름의 화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 같은 공산당의 노선 변경은 1990년대 초부터 쥘가노프가 이끄는 공산당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제안된, 이른바 ‘공산애국주의(коммунопатриотизм)’라는 개념을 통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중 어떤 계층이 공산당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6%가 연금수령자와 퇴역 군인을, 25%가 노년층을, 7%가 저소득층을, 5%가 구(舊)소련공산당 당원을, 5%가 노동자와 농민을 공산당의 주요 지지층으로 꼽았다.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설문 a. “Кто сегодня поддерживает КПРФ,”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ФОМ).

<http://bd.fom.ru/report/cat/polit/polpar/kprf/of044505> (검색일: 2010.11.01).

- 15)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학술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소비에트 애국주의 vs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대립구조로 말미암아 민족주의를 가치중립적 개념이 아닌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대중 영역에서 민족주의보다는 애국주의라는 용어가 선호되며, 탈소비에트 러시아 공간 내에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В. С. Малахов,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Понаяхали тут... Очерки о национализме, расизме и культурном плюрализме. Москва :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7. стр. 27-28.
- 16) 공산당이 자신의 이념체계 속으로 민족주의를 편입하고 이를 강화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예컨대, “민족적 사회주의(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циализм)” 또는 “민족적 공산주의(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мунизм)”와 같은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강령, 당규, 선언문 등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공식 문헌에서 상대적으로 민족주의보다는 애국주의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선호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공산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 공산애국주의 노선의 본질과 내용

현재 러시아연방공산당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공산애국주의는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한 혼성(hybrid) 이데올로기로, 특히 그 바탕에 국가주의적·제국주의적 성격은 물론, 종족민족주의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¹⁷⁾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명확히 분석·파악하기 위해서 당의 공식적 강령과 당규를 비롯하여 선거운동 자료집, 당 차원의 결의문, 그리고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개인적 저작과 발언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강령은 시기별·사안별로 한정된 다른 자료들에 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추상적으로 정당 이념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라는 점에서 선차적 분석 대상이 된다.¹⁸⁾ 따라서 본 글에서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식 문헌들과 쥘가노프의 주요 저작을 통해 공산애국주의의 본질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수행할 것이다.

현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이념적 지향, 즉 공산애국주의의 핵심 원칙은 사회주의와 애국주의의 통합성과 불가분성으로 대변된다. 일면 상호 대립적 개념으로 여겨지는 이 두 이념체계의 공존을 위해 공산당은 우선하여 현 단계 혁명의 성격과 과제 설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스스로 강령의 모두(冒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종국적 목표인 “21세기에 부합하는 혁신된 사회주의체제의 구축”, 즉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족해방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강령에서는 이 같은 혁명의 성격과 과제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 비교적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러시아는 비극적 위기에 처해있다. 현 통치체제는 거짓과 폭력에 의해 조국의 인민을 야만적이며 원시적인 자본주의로 인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반동의 길이며, 또한 사회적 퇴보의 길이다. <...> 모욕당한 강대국의 명예에 대한 애국자들의 고통은 분노에 찬 저항과 억압받는 자들의 봉기를 통해 분출된다. 모든 계층으로부터 현 통치체제에 대한 저항이 점증하고 있다. 민족·애국 세력, 그리고 사회·민족해방 세력이 조직·통합되고 있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노동자의 이해에 충실하면서, 사회계급 운동과 민족해방 운동을 하나의 대중적 저항 운동으로 통합하는 것과 함께 이에 의식적이며 합목적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있다.¹⁹⁾

17) Малахов, Указ. соч., стр. 29.

18) A. Lijphart, “Dimensions of Ideology in European Party System.” Peter Mair, eds.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Oxford Univ. Press. 1990. p. 254.

19) 1997년 개정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 Программа КПРФ (Дополнения и изменения приняты IV съездом КПРФ 20 апреля 1997 года).

〈동북아연구〉

이 같은 내용은 일부 표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개정된 현 당 강령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조국의 구원이 소비에트 체제의 부활과 사회주의 노선의 추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의 수치심은 더럽혀진 강대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애국자들의 의지와 결합된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조국의 자주를 위한 인민·애국 운동이 성장할 것이다. 현재적 조건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사회계급 운동과 민족해방 운동을 하나의 전선으로 통합함과 함께, 여기에 합목적성을 부여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다.

사회계급 투쟁과 민족해방 투쟁의 활성화와 함께,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정치적 동지들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사회주의 및 좌익 진영의 정당들과 사회 조직들, 그리고 진보적 애국운동 단체들이 그들이다.

공산당은 자신의 전략적 목표의 평화적 달성을 위해 3단계를 설정한다. 첫째 단계에서 근로 인민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인민·애국 세력의 민주적 권력의 수립이 이루어질 것이다.²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령에서 주목할 지점은 사회주의 혁명의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민족해방 투쟁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현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1단계 혁명의 성격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해서 광범한 인민·애국 세력의 전취를 통한 단일 통일전선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당수인 쥘가노프의 저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1995년 출판된 『수평선 너머』(За горизонтом)에서, “우리 공산당은 지난 시절의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협소한 목표로 한정 지어왔던 분파주의적 입장을 대폭 수정·극복하고, 대다수 러시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천명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²¹⁾ 그뿐만 아니라, 쥘가노프는 2004년 제10차 당 대회 결정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현대 러시아의 부흥을 위한 열쇠가 사회 정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민족적 구원을 위한 애국자들의 투쟁을 통합하는 데에 있다고 확신한다. 러시아에서 사회 혁명은 현재까지

http://moscowkprf.narod.ru/sait/bloknot/programma__kprf.htm (검색일: 2010.09.03).

20) 2008년 개정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 Программа КПРФ(Дополнения и изменения приняты XIII съездом КПРФ 30 ноября 2008 года). <http://kprf.ru/party/program/> (검색일: 2010.09.03).

21) 쥘나지 쥘가노프 저·김명호 역, 『러시아는 무엇을 꿈꾸는가』 서울: 한울, 1996. p. 14.

가능하다. 현대적 조건에서 사회혁명은 민족해방 투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²²⁾ 이로써 공산당은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조성된 새로운 조건에서 현시기 혁명의 성격과 과제를 새롭게 도출함으로써,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념체계 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공산애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정통성 확립은 10월 혁명과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으로 확장된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의 강령에 따르면, 10월 혁명은 러시아라는 역사적 민족국가의 보존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다.

소련은 제정 러시아의 지정학적 후계자였다. 소련은 국가로서 그리고 사회체제로서 불가분의 통일체였다. 내·외의 적들은 소련의 전 시기에 대한 중상에만 몰두하였다. 사회주의를 태생적으로 혐오했던 그들은 이 위대한 강대국의 무덤을 파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조국의 부흥과 사회주의적 길로의 회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역사는 조국의 인민에게 또다시, 위대한 강대국과 사회주의, 그리고 국가의 붕괴와 식민지로의 전락이라는 1917년과 1941년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대러시아민족 이념(русская идея)’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이념이라 감히 주장할 수 있다. 10월 혁명은 군사적·정치적·경제적 붕괴, 영토적 손실 그리고 집권 부르주아·지주 연합의 총체적 무능력의 상황에서 민족국가의 보존을 위한 유일한 방도였다.²³⁾

10월 혁명은 군사적·정치적·경제적 붕괴, 영토적 손실 그리고 집권 부르주아·지주 연합의 총체적 무능력의 상황에서 민족국가의 보존을 위한 유일한 방도였다. 10월 혁명의 창조적 성격의 합법적적 발현이 바로 다민족적 소비에트 연방의 설립이었다.²⁴⁾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10월 혁명은 제정 러시아의 국가성과 러시아의 역사성을 부정하고자 했던 시도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조국 러시아의 몰락과 식민화를 막고자 했던 애국자들의 역사적 봉기로 설명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성립한 소련 역시 봉건 부르주아적 형식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진 민족국가 러시아의 보존을 위한 대안의 체제였던 것이다.²⁵⁾

10월 혁명과 소련의 성격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과 함께,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념이 러시아의 민족적 심리 구조와 깊은 친화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발 더 나

22) В. С. Никитин, “Вой на цивилизаций и судьба России.” КПРФ и мир (July 13) 2005. <http://kprf.ru/international/34908.html> (검색일: 2010.09.25).

23) 1997년 개정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

24) 2008년 개정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

25) 유가노프, op. cit., 1996, p. 35.

아간다.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의 독창적 문화와 도덕적 전통이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 “핵심 가치가 공동체성, 집산주의, 애국주의, 그리고 개인·사회·국가의 긴밀한 결속”에 있다고 지적한다.²⁶⁾ 따라서 그들에게 사회주의적 ‘집산주의(коллективизм)’는 전통적 “소보르노스찌(соборность)”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다음으로, 공산애국주의는 문화·문명적 개념에 입각한 러시아와 서구의 대립적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유가노프는 역사의 발전과정을 계급갈등,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명들 - 러시아 정교, 서구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 간의 지정학적 상호작용과 경쟁과정, 그리고 교체과정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 발전의 본질은 문명 상호 간의 갈등과 대립이며, 계급관계는 이 안에서 부차적 역할을 부여받을 뿐인 것이다.²⁷⁾ 따라서 현재 러시아에서의 주요 모순은 계급 간 모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문명의 파괴를 획책하는 서구 기독교 문명, 이에 협조하는 매판 계층을 축으로 하는 집권 체제와 러시아 정교 문명, 즉 나머지 국민들 간의 대립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은 공산당의 강령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탈소비에트 공간과 동유럽에서의 자본주의의 복원 이후,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제국주의적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대립은 “문명 간 전쟁(война цивилизаций)”의 형태와 결합되고 있다.²⁸⁾

이 같은 러시아와 서구의 대립적 구조에 대한 강조는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문명의 강화, 즉 “민족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과 같으며,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인식된다는 점”²⁹⁾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입장의 강화를 수반하게 된다. 예컨대, 유가노프는 러시아연방공산당 제10차 대회 중앙위원회 정치 보고문에서 “지난 천 년 동안 대러시아 민족의 과제는 3개의 대양에 걸친 광대한 국가 건설이었다. 대러시아 민족은 위대한 세계적 강대국을 건설하였다. 다른 민족들을 통합하였고, 그들을 파멸로부터 보호하였고, 그들을 거대한 가족으로 편입시켰다.”라고 묘사하였다.³⁰⁾ 이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이 국가주의를 토대로, 민족문제를 제국주의적 그리고 유라시아주의

26) 2008년 개정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

27) 유진숙, “러시아정당 이념형성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공산당, 야블로코와 통일러시아를 사례로 하여,” 『슬라브학보』, 22집 2호, 2007. p. 295; 유가노프, op. cit., 1996, p. 18-19, 33.

28) 2008년 개정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

29) 신봉수, “계급과 민족의 변증법,” 『한국정치학회보』, 43집 1호, 2009. p. 68.

30) Г. А. Зюганов, “МЫ ВЫСТОЯЛИ. ВПЕРЕДИ ТРУДНЫЙ МАРШ!” Политический отчет ЦК КПРФ X съезд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April 7) 2004. http://www.cprf.info/party/materials/plenum_x/24785.html (검색일: 2010.09.03).

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산당 강령에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치는 상실되었다. <...> NATO는 공공연히 우리의 국경을 침식해 들어오고 있다. 러시아 연방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재분할의 대상으로, 자원 공급처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듯이³¹⁾, 공산애국주의는 서구에 대한 적의를 내용으로 하는 반서구주의적 경향을 자신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산애국주의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이념적 바탕으로 종족민족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제10차 대회에 중앙위 정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적 축은 이른바, “러시아민족 문제(русский вопрос)”로, 공산당의 대러시아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자민족중심주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대 러시아 애국주의의 핵심 문제는 바로 ‘러시아민족 문제(русский вопрос)’이다. 현재 매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또한 그들의 무언의 참여 속에서 위대한 대러시아 민족이 지구 위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 그 어떤 저항도, 단두대도, 가스실도, 그리고 대규모 살육도 없이 대러시아 민족의 사멸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히 히틀러마저 질투할만한 규모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 무대에서 대러시아인은 6백만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비밀리에 회자되고 있다. 그 정도의 인구로도 가스 파이프와 다이아몬드 광산 또는 시베리아 침엽수 지대에서의 벌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터무니없는 헛된 망상이 아니다. 이러한 전략은 매년 백만 명 정도를 희생시키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개혁 시기 “과잉 사망(excess mortality)” 인구가 천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중 대러시아인의 손실이 팔백만에 달하였다. <...> 최근 5년간 매년 1,825,000명이 죽어갔으며, 이는 매시간 200명의 대러시아인의 상실을 의미한다. <...> 우리는 대러시아 민족에 대한 의도적, 의식적, 지속적 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 앞서 언급된 바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핵심과제는 대러시아 민족의 구원, 그리고 이와 함께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구원, 위대한 국가성 형성에 함께한 모든 인민들의 구원이라 할 것이다.³²⁾

2. 탈소비에트 선거과정에서의 공산애국주의의 발현

1993년부터 공산당을 이끌고 있는 당수 유가노프는 1990년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공산당 창립 당시, 국가주의 성향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였다. 그는 1992-3년의 치열한 투쟁의 과정에서 민족·애국진영과 좌익세력이 연합하여 조직된 ‘민족구원전선(ФНС: Фрон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пасения)’의 역할과 반정부적 민족주의 운동의 의미를 높게 평가한 대표적 공산주의자로 알려졌다.³³⁾ 따라서 90년대 초·중반 민족주의 신문 ‘덴(День,

31) 2008년 개정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

32) Зюганов, Указ. соч., 2004.

현재 *Завтра*)의 편집장 ‘프로하노프(A. Проханов)’와 민족주의 진영의 싱크탱크였던 ‘정신유산(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의 창립자인 ‘포드베료즈킨(A. Подберезкин)’이 유가노프의 주요 이념적 동지이자 핵심 선거운동 이데올로그로 활동하였던 점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5-1996년 선거 캠페인은 이 같은 공산애국주의의 적극적 반영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산당은 좌익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지지를 기반으로 러시아 민족주의 성향의 우익 반정부 진영으로의 적극적 세력 확장을 기도하였다. 1996년 대선을 앞두고 그해 8월 유가노프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조직의 연합조직인 ‘러시아인민애국동맹(НПСР: Народ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союз России)’ 결성을 주도하였다.³⁴⁾ 그리고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약 130여 개 민족주의·공산주의 조직들이 유가노프와 그의 ‘동맹’에 가입하였으며, 지지를 표명하였다.³⁵⁾

“반인민적 정권의 파탄(bankruptcy of anti-people regime)”을 주요 기치로 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가노프는 현 집권세력에 의한 소비에트 군산복합체의 쇠락, 지속적인 산업 생산의 감소, 사유화 과정의 범죄화, 과학과 학문에 대한 경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엘친은 러시아 인민과 러시아적 가치가 아닌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의 이익에 복무해왔을 뿐이며, 개혁의 이름으로 시행된 일련의 정책은 자신의 인민을 상대로 한 경제전쟁에 불과하였다. 그는 특히 “엘친의 지난 5년 시기는 황폐화된 경제, 체츠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인의 세계적 절멸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언급하는 등 ‘민족근절’을 엘친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지적하였다.³⁶⁾

1996년 대선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선거 캠페인은 유가노프가 공산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애국 진영의 지도자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선거운동의 전반적 과정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전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유가노프는 이른바 좌익 진영 내 급진세력이 더욱 분명한 경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를 최대강령주의에 입각한 좌편향으로 비판하였다. 반면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정(stability)’과 ‘중용(moderation)’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용어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민족주의 담론에 바탕을 둔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우향 기동은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러시아인민애국동맹은 1996-1997년 지방선거에서도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선거운동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1999-2000년 선거과정에서도 공산당은 광범위한

33) McFaul, op. cit., 1997, p. 39.

34) В. Прибыловский, Оппозиция-2010. 60 биографий. М.: РОО Центр «Панорама». 2010. стр. 31, 36.

35) McFaul, op. cit., 1997, p. 37.

36) Ibid., p. 39.

애국주의 연합 ‘승리를 위해(За Победу!)’의 창립을 제안하였고, 자신의 선거 정책 문서 ‘일어나라, 거대한 나라여! (Вставай, страна огромная!)’에서도 실질적인 경제 프로그램 대신, 유권자의 민족·애국주의적 감정, 강대국주의적 지향에 호소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이 문서에서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아닌, “러시아 인민의 굴욕(унижение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과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통합에 의한 국가의 통일성 복원을 매개로 하는 민족적 절멸의 중단을 위한 “전 인민적 해방 투쟁(всенародна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борьба)”의 활성화가 강조되었다.³⁷⁾

러시아연방공산당의 공산애국주의 노선의 발현은 당수 쥘가노프의 스탈린에 대한 평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스탈린을 공산당의 영웅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가혹한 것임을 주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쥘가노프는 스탈린이 수백만을 학살했다는 역사학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며, 희생자는 “단지” 60만이었을 뿐이라고 언급하였다.³⁸⁾ 그의 표현에 따르면, 내부모순의 가중으로 약화된 제정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대안으로 등장한 소련에서, 스탈린은 ‘소비에트 애국주의’ 사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수세기에 걸친 러시아의 전통과 새로운 현실의 결합이라는 불가피한 요구를 이해하고 해결한 영웅이었다. 특히 2001년 3월 5일 스탈린 사망 48주기 기념 헌화 연설에서 “오늘날 스탈린의 무덤에 수많은 인파가 줄을 잇고 있다. 〈...〉 현재 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스탈린 시기를 조국의 전성기로, 과학·교육·사회보장의 발전기로, 제2차 대조국전쟁의 역사적 승리의 시기로, 그리고 파괴된 경제의 복원과 초강대국으로서의 역사적 러시아의 영향력 확립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역설하였다.³⁹⁾

1990년대를 관통하는 그리고 현재까지 러시아연방공산당이 향유하는 지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그들이 절망적 현 상태에 대한 보상기제로 날카롭게 유권자들의 과거에 대한 향수의 감정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공산당은 급진적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 대중의 부정적 심리에 대한 보상 기제인 ‘강한 국가’에 대한 기대 심리와 ‘붕괴된 거대 제국에 대한 향수’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장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01년 ‘니쥬니이 노브고라드(Нижний Новгород)’와 ‘툴라(Тула)’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의 러시아연방공산당 후보들의 승리 이후,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이 2001년 9월에 실시한 공산당의 선거 승리 원인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20%가 “‘안정성’, ‘미래에 대한 확신’, ‘낮은 범죄율’ 등 공산주의 하에서 더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11%가 전통적 공산당 지지성향의 노년층의 높은 투표율을, 9%가 다른 정당 후보자에 대한 공산당 후보자

37) Черняховский, Указ. соч., 2000.

38) McFaul, op. cit., 1997, p. 43.

39) Прибыловский, Указ. соч., 2010, стр. 37.

들의 상대적 신뢰감을, 8%가 민주주의에 대한 절망을, 8%가 공산당 후보들의 효과적 선거운동을, 5%가 주민들의 낮은 생활 수준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⁴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응답자의 상당수가 지난한 자유주의적 체제개혁 과정에서 지난 공산주의체제 속에서 최상은 아니었지만 보다 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주민들의 과거 소비에트 시기에 대한 향수가 공산당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산당은 집권 엘리트세력이 자신을 스스로 자유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족·애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던 1990년대에 민족주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편입시켰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애국주의 지향의 유권자층의 비약적 확대로 표상되는 사회균열구조의 근본적 변동의 국면에서 공산당 영향력 증진의 핵심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IV. 통치세력의 민족·애국주의적 전환과 러시아연방공산당의 미래

푸틴정부의 등장은 집권세력의 통치담론의 ‘민족·애국주의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전임 엘리트정부와 명백히 구분되는 시기적 특성을 지닌다. 엘리트는 구소련 붕괴의 시점에서 관성적인 제국적 국가성에 반대하며 성공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의 대적점에 자신을 위치 시킴으로써 권력을 장악하였다. 특히 자신을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세력으로, 또한 구 통치세력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규정지어 왔으며, 따라서 민족주의적 담론의 활용 측면에서 수동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푸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집권세력은 전통적 애국주의자들의 활동 무대로 전격 진출하였다. 비록 경제 영역에서 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였음에도, 집권세력은 자신을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으로 한정코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1990년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은 물론, 극우 민족주의 진영 등 자신의 반대파들이 통치세력의 공격에 활용해왔던 민족주의적 수사와 상징물들을 전유하기 시작하였다.⁴¹⁾

2000년 푸틴의 등장 이후, ‘강한 국가(сильная страна)’ 건설 테제로 대변되는 러시아 집권세력의 민족·애국주의적 전환은 정치권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족주의 담론의 바탕 아래 효과적으로 애국주의 지향의 유권자층을 끌어들이므로써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군림했던 공산당은 푸틴의 후원 아래 조직된 권력당 ‘통합

40)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설문 b. “Почему коммунисты побеждают на выборах?,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ФОМ). <http://bd.fom.ru/report/cat/polit/polpar/kprf/of013304> (검색일: 2010.11.01).

41) 장세호, “이행기 러시아에서의 민족주의의 정치적 역할: 도구주의적 시각에서 그 이념적·실천적 기능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6권 1호, 2010. p. 83-87.

(현재, 통합러시아)'과 공산당 지지표의 분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디나(Родина)' 블록에 의해 2003년 국가두마 선거를 기점으로 현저한 영향력 저하를 겪게 되었다.

실제로 2001년 3월 사회여론재단에 의해 시행된 “최근 2, 3년 동안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 보는가, 아니면 축소되었다고 보는가?”라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1%가 축소를, 28%가 변화 없음을, 14%가 강화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⁴²⁾ 2004년 1월 유사한 주제로 시행된 장래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 변화 예상을 묻는 설문에서도 단 7%가 강화되리라고 응답하였을 뿐, 30%는 현재 수준에 머무르리라고, 45%가 영향력이 감소하리라고 응답하였다.⁴³⁾ 즉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의 감소를 지각 또는 예상하는 러시아 주민들이 증가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은 현실로 드러났다.

이상의 탈소비에트 러시아 공간에서의 선거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본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민족주의 담론을 활용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강한 국가'와 '붕괴한 거대 제국에 대한 향수'에 입각한 민족주의 담론의 반(半)독점상태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푸틴의 등장과 현 집권세력의 민족·애국주의적 전환으로부터 기인한 공산당과 현 통치세력 간의 민족주의담론 경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동안 효과적으로 점유하여왔던 중간지대(애국·민족주의 성향의 유권자층)를 상실하고 자신의 영향력 감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러시아연방공산당의 몰락을 쉽게 예단키는 어렵다. 50만 당원을 비롯해 충성도 높은 견고한 전통적 지지 세력과 소련공산당으로부터 계승한 지역조직의 존재와 유일한 실질 야당으로서의 공산당의 위상과 역할은 적어도 당분간 공산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주요한 담보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4년 6월 사회여론재단에 의해 통합러시아, 조국, 자민당, 우파세력연합, 농업당, 공산당, 야블로코 7개 정당 및 선거블록 중 가장 반정부적 성향이 강한 정당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3%가 공산당을, 18%가 자민당을 꼽음으로써 러시아 주민들의 상당수가 공산당을 현 집권세력의 대척점에서 있는 정당, 즉 가장 선명한 야당성을 가진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전 러시아 사회여론 연구센터(ВЦИОМ)'에 의해 2006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공산당 지지율 변화 분석에서도 공산당은 6-10% 지지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42)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설문 c. "Россияне считают, что полит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КПРФ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низилось,"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ФОМ).

<http://bd.fom.ru/report/cat/polit/polpar/kprf/of010803> (검색일: 2010.11.01).

43)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설문 d. "Опрос населения (15.01.2004),"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ФОМ) <http://bd.fom.ru/report/cat/polit/polpar/kprf/dd040129> (검색일: 2010.11.01).

44) '전 러시아 사회여론 연구센터(ВЦИОМ)' 설문 a. "Электоральный рейтинг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

다만, 러시아연방공산당이 현 집권세력과의 민족주의 담론 경쟁 및 자신의 영향력 증진을 위해 민족주의적 색채를 보다 분명히 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은 비단 공산당의 존립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당체제에서의 다당제 및 다원주의의 정착 가능성에 대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지점이 될 것이다. 공산당이 처한 이와 같은 위기국면에서, 향후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공식 문헌들과 쥬가노프를 비롯한 주요 당 지도부의 발언을 통해 대체적 유추가 가능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산당은 자신의 전통적 사회주의 노선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쥬가노프를 필두로 한 당 중앙위는 2008년 11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연방공산당 제13차 대회를 앞두고 핵심 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의 자연 자원과 경제의 전략적 영역을 국유화한다.
-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 국가의 식량 안보를 확립한다.
- 시민 생활 악화, 국부 약탈을 조장하는 법령을 재검토한다.
- 빈곤 제거를 위한 투쟁을 신속하게 착수한다.
- 진보적 과세를 시행한다.
- 주택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복원한다.
- 과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질 높은 무상교육을 복원한다.
-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화 접근성을 증진하고, 이의 상품화를 중단한다.
-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 부패와 범죄를 억제한다.
- 국방력의 전투태세를 강화한다.
- 러시아의 영토적 통일성과 국외의 동포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 국가와 민족 간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정책을 수행한다.⁴⁵⁾

좌파 본연의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강화로 대변되는 이 같은 당 중앙위의 강령안은 제

рги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ЦИОМ).
<http://wciom.ru/index.php?id=170> (검색일: 2010.11.01).

45) Г. А. Зюганов, “о ключевых программ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КПРФ: Путь России в будущее.” (November 29) 2008. Пресс-служба ЦК КПРФ- KPRF.RU
http://kprf.ru/party_live/61566.html (검색일: 2010.10.02).

13차 대회를 통해 당 강령의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1997년 강령이 공산애국주의 노선의 중심축의 하나인 공산당의 민족주의적 입장을 문안의 모두에서부터 강조한 반면, 2008년 개정된 강령에서는 문안의 서두에서 러시아에서의 21세기형 사회주의 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민족주의적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의 국면도 이 같은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노령화되고 있는 전통적 지지층을 대체할 젊은 유권자층과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산당은 물가 및 주택·공영사업 관련 세금 동결, 민영화된 재산의 국유화 같은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에 임했다. 물론 대중의 현 정부와 권력당에 대한 불신 및 저항심리 표출의 반사이익으로부터 힘입은 바 크지만 공산당은 22%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2월 4일 치러진 총선에도 이어져 공산당은 19.16%의 득표율로 총 450석 하원의석 가운데 92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앞서 기술된 공산당의 변화가 공산애국주의 노선 자체의 폐기 또는 상당한 후퇴의 전조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09년 10월 17일 프스코프(Псков)에서 열린 북·서관구 공산당 활동가 회의에서의 쥘가노프는 “러시아에서 대러시아인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스인을 포함하면 85%에 이른다. <...> 이는 프랑스에서 프랑스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영국에서 잉글랜드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이다. 세계적 기준을 고려할 때, 러시아연방은 거의 단일민족 국가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레토릭을 반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동 회의에서 그는 “현 정치투쟁의 민족·해방 단계를 무시하고, 국가형성 민족이며, 노동계급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이자, 사회적 평등·우의·창조의 이념을 체현하고 있는 민족인 대러시아 민족의 핵심적 이해의 보호를 위한 당 노선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또한, 진실한 애국자로 그리고 조국의 시민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으로 당을 기만하고 있다. <...> 현재 치열한 정치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나 작은 전투에서조차 변절자, 탈영병, 배신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한다. 우리 역시 이 같은 자들의 청산을 위한 규정이 있다. <...> 그리고 우리는 당의 조직적·정치적 통합의 유지 문제에서 매우 원칙적이며 엄격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⁴⁶⁾ 쥘가노프의 이 같은 언급은 러시아연방공산당이 공산애국주의 노선을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내의 여타 분파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46) И. Иванов, “Зюганов в псковском выступлении обещал национализм и новые чистки.” ЛГК (October 20) 2009. http://www.cprf.info/news/party_news/55089.html (검색일: 2010.09.13).

이와 함께,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지지세의 감소 국면이 공산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산당은 가장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에서부터 급진적 공산주의, 국제주의, 그리고 공개적 대리시아 민족주의에 이르기까지, 또한 종교적으로는 전투적 무신론에서 정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적 지향에 기초한 정치 세력들이 편제된 정당이다.⁴⁷⁾ 쥘가노프를 비롯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세력이 주도하는 공산당이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당내의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세력들이 원심적 경향을 보이며 분리되어 나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탈소비에트 러시아 정치 공간 내에서 유일한 실질 야당으로 존재하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자신의 생존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 당분간 민족주의적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본연의 사회주의적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V. 결 론

러시아연방공산당은 20여 년 간의 지난한 체제이행기 동안 러시아 정치사회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해온 경쟁 정당들과는 달리 동일한 명칭과 조직을 유지해온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공산당은 러시아 연방 내의 다양한 러시아 정당들 가운데 명확한 이데올로기, 전국적 정당 구조, 명확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소련 붕괴 직후 조성된 옐친과 최고의회 사이의 유혈 사태 등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1993년 공식 창당한 이후, 그 해 12월 시행된 국가두마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러시아의 정치무대에 진입하였다. 1995년 국가두마 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 후 원내 제1당으로서 2003년 국가두마 선거 전까지 러시아 내의 보·혁 갈등의 한 축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집권 세력의 대척점에서 제1야당이자 유일한 실질 야당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은 2000년 푸틴의 등장 이후, 그리고 표면적으로 2003년 국가두마 선거에서 급격한 지지율 감소와 함께 원내 제1당 지위를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련 붕괴 후 수립된 신생 러시아 사회 내에는 소련의 전체주의적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병적인 거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소련 체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관통해 오던 공산주의 역시 자신의 정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신생 러시아의 체제전환 20년 동안 자신의 끈질긴 생명력을 증명해왔다. 무엇이 공산당의 조직적 생존과 대중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게 했는가, 그리고 현재 이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은 지속 가능한

47) С. А. Строев, “КПРФ: единство патриотизма и социализма.” Коммунист (July 03) 2006. <http://www.kprf.perm.ru/page.php?id=1338> (검색일: 2010.10.21).

것인가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발생한다.

물론, 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원천으로 급진적 체제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엘친의 비효율적 개혁정책과 무정부적 혼란에 대한 반작용을 꼽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노년층 등의 전통적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지지층의 존재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엘친 시기와 푸틴 시기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치적 부침에 관한 보다 정연한 설명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 해결, 즉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치적 위상 변화 원인 규명을 위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족주의 담론에 주목하였다.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으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신념 체계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⁴⁸⁾ 특히 이스턴(D. Easton)이 자신의 ‘정치체계론’에서 정치과정을 투입(input), 산출(output), 환류(feedback)의 과정으로 설명했듯이, 정치과정 속에서 각 정당들에게 현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미래모델 즉, ‘좋은 사회(the Good Society)’에 대한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⁹⁾ 특히, 신생 러시아와 같이 소비에트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체제전환과 새로운 국가성의 창출이 요구되는 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애국주의의 통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의 공산애국주의 노선 채택은 탈소비에트 러시아 공간 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요구된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대한 그들 나름의 화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진적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엘친의 비효율적 개혁정책과 무정부적 혼란에 비례하여 러시아 내에서는 애국주의 지향의 유권자층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사회균열 구조의 근본적 변동을 초래하였다. 엘친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자신을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족주의 담론에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 반면,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바탕으로 적극 인입함으로써 90년대 중반 화려하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반면, 2000년대 초반 공산당의 급속한 지지율 저하는 민족주의 담론의 활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집권세력이 푸틴 등장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통치담론으로 민족·애국주의를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민족주의 담론 경쟁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주도권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자신의 생존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 당분간 민족주의적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지지층의 수성을 위해 본연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48) 데이비드 맥렐런 저·구승희 역, 『이데올로기』 서울: 이후, 2002. p. 155.

49) 임성학, “한국의 선거와 이념: 정치사회와 유권자의 상호관계,” 『OUGHTOPIA』 23집 2호, 2009. p. 40.

《참고문헌》

- 강인구, “러시아 공산당과 좌익블록의 진로.” 『역사비평』 여름 (통권 47호), 1999.
- 겐나지 쥬가노프 저·김명호 역, 『러시아는 무엇을 꿈꾸는가』. 서울: 한울, 1996.
- 김경순, “러시아의 선거와 정치과정.” 유세희 편, 『현대 러시아 정치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5.
- 김창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체성.” 『한국과 국제정치』 12집 2호, 1996.
- 데이비드 맥렐런 저·구승희 역, 『이데올로기』. 서울: 이후, 2002.
- 문수연,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정강 및 정책방향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1997.
- 신봉수, “계급과 민족의 변증법.” 『한국정치학회보』 43집 1호, 2009.
- 장세호, “이행기 러시아에서의 민족주의의 정치적 역할: 도구주의적 시각에서 그 이념적·실천적 기능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6권 1호, 2010.
- _____. “수르코프, 21세기 러시아의 마키아벨리?.” 『Russia & Russian Federation』 2권 2호, 2011.
- 유진숙, “러시아정당 이념형성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공산당, 야블로코와 통일러시아를 사례로 하여.” 『슬라브학보』 22집 2호, 2007.
- 이창주, 『러시아현대정치사』. 서울: 한울, 1998.
- 임성학, “한국의 선거와 이념: 정치사회와 유권자의 상호관계.” 『OUGHTOPIA』 23집 2호, 2009.
- Lijphart, A. 1990. “Dimensions of Ideology in European Party System.” Peter Mair, eds.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Oxford Univ. Press.
- McFaul, M. 1997. Russia’s 1996 Presidential Election: The End of Polarized Politic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Зюганов, Г. А. 1995. За горизонтом. Москва: Информпечать.
- Зюганов, Г. А. 2004. “МЫ ВЫСТОЯЛИ. ВПЕРЕДИ ТРУДНЫЙ МАРШ!” Политический отчет ЦК КПРФ X съезд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April 7) http://www.cprf.info/party/materials/plenum_x/24785.html(검색일: 2010.09.03).
- Зюганов, Г. А. 2008. “о ключевых программ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КПРФ: Путь России в будущее.” (November 29) Пресс-служба ЦК КПРФ- KPRF.RU http://kprf.ru/party_live/61566.html(검색일: 2010.10.02).
- Зюганов, Г. А. 2009. “КПРФ - партия будущего. Обращение к молодежи России.”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April 25) http://kprf.ru/rus_soc/65961.html(검색일:2010.09.14).
- Иванов, И. 2009. “Зюганов в псковском выступлении обещал национализм и новые цифры.” ЛГК (October 20) http://www.cprf.info/news/party_news/55089.html(검색일: 2010.09.13).
- Малахов, В. С. 2007.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Понаехали тут... Очерки о на

〈체제전환기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치적 위상 변화에 대한 소고: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ционализме, расизме и культурном плюрализме. Москва :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Никитин, В. С. 2005. "Вой на цивилизаций и судьба России." КПРФ и мир (July 13)
<http://kprf.ru/international/34908.html>(검색일: 2010.09.25).

Прибыловский, В. 2010. Оппозиция-2010. 60 биографий. М.: РОО Центр «Панорама».

Строев, С. А. 2006. "КПРФ: единство патриотизма и социализма." Коммунист (July 03)
<http://www.kprf.perm.ru/page.php?id=1338>(검색일: 2010.10.21).

Шляпунчиков, А., Елкин, А. 2008. Есть такие партии! Путеводитель избирателя. М.: РОО Центр «Панорама».

Черняховский, С. 2000. "Россия в избирательном цикле 1999-2000 годов.." Под ред. М. М. акфол, Н. Петров и А. Рябов. М.: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http://carnegie.ru/ru/print/36483-print.htm>(검색일: 2010.09.05).

1997년 개정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 Программа КПРФ (Дополнения и изменения приняты IV съездом КПРФ 20 апреля 1997 года).
http://moscowkprf.narod.ru/sait/bloknot/programma_kprf.htm(검색일: 2010.09.03).

2008년 개정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 Программа КПРФ(Дополнения и изменения приняты XIII съездом КПРФ 30 ноября 2008 года). <http://kprf.ru/party/program/>(검색일: 2010.09.03).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설문 a. "Кто сегодня поддерживает КПРФ,"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ФОМ). <http://bd.fom.ru/report/cat/polit/polpar/kprf/of044505>(검색일: 2010.11.01).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설문 b. "Почему коммунисты побеждают на выборах?,"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ФОМ).
<http://bd.fom.ru/report/cat/polit/polpar/kprf/of013304>(검색일: 2010.11.01).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설문 c. "Россияне считают, что полит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КПРФ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низилось,"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ФОМ).
<http://bd.fom.ru/report/cat/polit/polpar/kprf/of010803>(검색일: 2010.11.01).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설문 d. "Опрос населения (15.01.2004),"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ФОМ)
<http://bd.fom.ru/report/cat/polit/polpar/kprf/dd040129>(검색일: 2010.11.01).

러시아 '사회여론재단(ФОМ)' 설문 e. <http://bd.fom.ru/report/cat/polit/polpar/kprf/dd042405>(검색일: 2010.11.01).

'전 러시아 사회여론 연구센터(ВЦИОМ)' 설문 a. "Электоральный рейтинг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ЦИОМ).
<http://wciom.ru/index.php?id=170>(검색일: 2010.11.01).

〈동북아연구〉

1993년 국가두마 선거 결과. http://www.cikrf.ru/banners/vib__arhiv/gosduma/1993/index.html

1995년 국가두마 선거 결과. http://www.cikrf.ru/banners/vib__arhiv/gosduma/1995/index.html

1999년 국가두마 선거 결과. http://www.cikrf.ru/banners/vib__arhiv/gosduma/1999/index.html

2003년 국가두마 선거 결과. http://www.cikrf.ru/banners/vib__arhiv/gosduma/2003/index.html

2007년 국가두마 선거 결과. http://www.cikrf.ru/banners/elect__duma/npa/

1996년 대통령 선거 결과. http://www.cikrf.ru/banners/vib__arhiv/president/1996/index.html

2000년 대통령 선거 결과. http://www.cikrf.ru/banners/vib__arhiv/president/2000/index.html

2004년 대통령 선거 결과. http://www.cikrf.ru/banners/vib__arhiv/president/2004/index.html

2008년 대통령 선거 결과. http://www.cikrf.ru/banners/elect__president/results/index.html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Political Status of the CPRF in the Period of Transition: Focusing on the Nationalist Discourses

Jang, Se-H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created a feeling of denial in regards to the totalitarian centralized system in Russian society. Yet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CPRF), the successor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CPSU) that had occupied the key position in the Soviet party-state system, still has proved themselves capable of competing with other larger parties. In this paper, following questions will be addressed. What makes the Russian Federation Communist Party's organizational survival and popular support? Additionally, is their current political status sustainable? Through an analysis of the 1993 to 2007 electoral process, the Communist party's spectacular resurgence in the mid-90s can be explained by the right turn of Russian leftists based on 'communo-patriotism'. However Putin's advent, the ruling elite, who had been relatively passive to take advantage of some nationalist discourses, positively included nationalism to their governance discourse. The rapid decrease of the Communist party in the early 2000s was derived from their defeat in the nationalist discourse competition with the ruling elite.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has existed as an real opposition party in post-Soviet political system of Russia. In order to survive and build their political influence,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will not only keep a nationalist program, but also reinforce various traditional socialist values.

Key Words: KPRF, Nationalism, Kommuno-Patriotism, State Duma, United Russia

투고일 : 2011.10.24 / 심사일 : 2011.11.25 / 심사완료일 : 2011.12.25